

마크 트웨인의 작품에 나타난 지배담론의 전복 문제*

성 경 준

I.

1885년에 『허클베리 핀의 모험』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이 출판되었을 때 왜 많은 백인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였고 많은 지역에서는 금서가 되었던 것일까? 당시 트웨인은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로 인정받고 있었고, 노예제도의 부당성은 지식인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하는 바 이었다. 또한 재건시대(The Reconstruction)를 거치면서 북부에 의한 남부의 통제는 이미 확고하여 노예 문제가 다시 정치적 이슈가 될 염려는 전혀 없었다. 사실 당대 노예제도에 대한 비판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일 수가 있었다. 이미 많은 작가들도 노예제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반문명적인가인가를 비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작품에서 짐(Jim)을 통하여 노예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그리 새로울 것이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보스턴 콩코드(Concord) 지역에서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고 그 지역 도서관에서 추방하였다. 그렇다면 이 책에 나오는 노예 해방에 관한 메시지가 콩코드 주류 백인들의 심사를 거슬렀던 것일까? 콩코드 지역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 역사에서 진보적인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미국 독립전쟁의 총소리가 처음 울리고¹⁾ 19세기 초반 진보적인 사상가로서 유명한 에머슨

* 이 연구는 200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미국 독립 전쟁의 첫 전투는 보통 렉싱턴 전투(Battle of Lexington)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첫 전투가 벌어진 것은 호손이 잠시 거주하였던 콩코드 Old Manse 근처

(Emerson)과 소로우(Thoreau)가 살았던 지역이며, 그들이 노예 해방연설을 하였던 지역이다. 특히 소로우는 그의 노예해방 연설로 감옥에 갇혀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를 써서 뜻을 같이 하는 초절주의자들(Transcendentalists)에게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한 진보적인 지역에서 왜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 책을 금서로 했던 것일까?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한 보스턴 콩코드(Concord) 지역 도서관 위원회는 이 책의 언어가 “상스럽고 사람을 비천하게 만들기”(coarse and demeaning)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고 있다(Sundquist 124). 즉 이 책에서 쓰인 흑인 짐과 남부 하층 백인 혁의 언어가 교육상으로 아주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당대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호레이쇼 엘저(Horatio Alger)류의 소설이나 인기 남부 작가인 조지 워싱턴 케이블(George Washington Cable)이나 조엘 찬들러 헤리스(Joel Chandler Harris) 등의 작품에서 혁이나 짐이 사용하는 언어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에 대해 그렇게 격렬한 반응이 나온 것은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이 작품에 담긴 인종 지배 담론의 전복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 작품에서 트웨인의 인종 지배 담론의 전복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작품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유머와 위트, 그리고 다양한 글쓰기 전략이 웃음을 유발하면서 트웨인의 전복적 태도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트웨인은 사회 비판의식을 가진 휴머니스트로서 치부되며, 비평가들도 주로 그의 유머나 사회비판, 그리고 휴머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왔다. 하지만 최근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 등 일부 비평가들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인종지배 담론의 전복에 주목한 것처럼 트웨인의 작품 세계는 당대 지배담론에 대한 전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즉 아직 출판되지 않는 작품들뿐 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 작품들 역시 단순히 사회 비판을 넘어 당대 지배담론에 대한 전복이 언제나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즉 들뢰즈(Deleuze)의 표현을 빌자면 트웨인은 당대 지배 담론을 “탈영토화”(de-territorialize) 시킨 작가라고 말할 수 있다. 어쩌면 트웨인의 다양한 글쓰기 전략은 그러한 전복을 하면서도 독자

를 잃지 않기 위한 그의 노력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 본 논문은 트웨인의 당대 지배 담론에 대한 이러한 전복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II.

먼저 앞서 논란이 되었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살펴보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당대 흑인들은 법률적으로는 해방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예해방 전보다 더욱 가혹한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스미스가 지적했듯이 그것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흑인들에 대한 인종 지배 담론이었다³⁾. 당대 유행하였던 민스트럴 쇼(Minstrel Show)의 ‘검둥이(Darky)’의 모습은 인종지배 담론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남북전쟁이후 1900년도 초까지 백인들이 가장 좋아하였고, 또 트웨인도 즐겨보았던 이 쇼에 등장하는 ‘검둥이’는 “어리석고, 미신적이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David 106) 인간 이하의 존재로 재현된다.

이러한 ‘검둥이’의 모습이 지배 담론으로 백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짐의 모습은 단순히 흑인의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인종 담론에 대한 트웨인의 전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짐의 모습은 상당 부분 양가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트웨인의 글쓰기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짐의 재현은 ‘검둥이’의 이미지를 전복한다(Bell 12). 그는 작품 내에서 영리하고 현명한 모습으로 등장하며 혁의 조연자이며 가장 가까운 친구로 등장한다. 그는 혁이 피곤할까봐 밤에 혁을 깨우지 않고 대신 망을 봐

2) 트웨인은 글쓰기 전략에 관심을 갖지 않은 작가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며 그의 글쓰기 전략에 대한 비평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그의 글쓰기 전략을 지배 담론의 전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독자의 인기를 잃지 않으려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이 글쓰기 전략으로 나온 것이라고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여기에서 “인종담론”이란 백인과 흑인이 각각 타고난 육체적, 정신적인 인종적 특질을 가짐으로서 흑인이 백인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담론을 지칭한다. 스미스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어리석고 미신적이며 열등한 인간이하의 존재라는 인종담론이 역사적으로 뿌리깊게 내려오며 남북전쟁이후로 그것은 민스트럴 검둥이(Minstrel Darky)의 모습으로 구현된다. Smith, 104-5 참조.

주는 사려깊은 사람이며--백인인 왕(the King)과 공작(the Duke)은 짐과 혁조차 위그엄(wigwam)에서 쫓아내고 큰 대자로 누워 잔다--가족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딸을 그리워하며 홀로 흐느껴 울기까지 한다. 물론 그것에 대해 혁도 흑인에게 그런 감정이 있음을 의아해 하나 그것은 당대 백인들이 얼마나 깊게 인종 담론에 잠겨있는지를 보여준다. 그가 15장에서 혁의 거짓말에 대해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I know what this stands for)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친구를 배신하는 인간 “쓰레기”(trash)를 규정하는 모습⁴⁾은 인종담론을 전복하는 짐의 재현을 잘 드러낸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내 지금부터 말해 줄테니 잘 들어보렴. 내가 정신없이 설치면서 너를 부르고 하다가 그만 녹초가 돼서 잠이 들었을 때, 나는 네가 없어진 것이 얼마나 슬프던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뗏목이고 뭐고 상관없었지. 그런데 눈을 뜨고 네가 살아서 성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알았을 때는 너무 기뻐 눈물이 났다. 나는 엎드려서 네 발에 입을 맞추며 감사하고 싶었지. 하지만 너는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이 늙은 짐을 속일 수 있을까 하는 거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니니? 저기 있는 저것이 바로 쓰레기 아니냐. 친구의 머리에 먼지 구덩이를 뒤집어 씌워 망신을 주는 배신하는 인간이 바로 쓰레기란다. (95)

이러한 짐의 당당한 모습에 혁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한다. 그리고 “검둥이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일 수 있을 때까지는 십오 분이 걸렸지만”(95) 혁은 인간으로서 짐을 인정한다. 바로 트웨인의 인종담론을 허무는 모습이 잘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짐이 당대 인종담론을 허무는 모습은 혁의 아버지인 펍(Pap)의 죽음을 감추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짐은 9장에서 펍이 살해되었음을 알면서도 임기응변을 발휘하여 혁에게 그것을 감춘다. 그리고 혁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은 마지막 장인 43 장에 가서이다. 이것은 당대 인종 담론이 흑인들에게 부여했던 “어

4) 이러한 모습에 대해 트릴링(Lionell Trilling)은 “진정한 위엄이 보이는 아주 드문 자존의 모습”(277)이라고 까지 파악한다.

리석고 둔한” 모습이 아니라 영리하고 상황을 이용하는 임기응변을 갖춘 짐의 모습을 재현한다. 이러한 모습은 16장에서 짐이 하는 말 “혁은 짐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늙은 짐과의 약속을 절대로 어긴 적이 없는 단 한사람의 백인 신사”(111)라는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말은 지금까지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짐의 혁에 대한 우정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혁이 마음이 흔들려 짐을 고발하려고 한 순간에 한 이 말은 다른 한편 혁의 마음을 잡으려는 짐의 “계산된 언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짐의 “영리하고 임기응변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대 인종 담론을 허무는 발언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백인들과 짐의 재현의 대조는 당대 인종 담론에 대한 트웨인의 공격이라고 까지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아버지형(Father Figure)에 해당하는 백인들은 모두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들들을 셰퍼드슨가(the Sherpherdson)와의 무의미한 분쟁(feud)에 몰아넣어 모두 죽게 만든 그랜저포드 대령(Colonel Grangerford), 그리고 술 취해서 실수를 하지만 사람좋은 보그스(Boggs)를 딸이 애원하는 데에도 쫓아 죽이는 서먼대령(Colonel Sherburn)의 모습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백인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 그리고 왕(the king)과 공작(the duke)의 사기 행각과, 그렇게 잘 대해주었는데도 짐을 펠프스(the Phelps) 집안에 팔아넘기는 그들의 모습은 백인 아버지에 대한 트웨인의 근본적인 회의를 보여준다. 42장에서 짐이 다시 사로잡힌 후 짐이 탐의 간호에 시달려 지쳐 있는 짐에게 동네 백인들은 아주 무거운 사슬로 묶고 물과 빵만을 준다. 혁은 그들에게 좀 더 잘해주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감히 그들의 잔인함에 “참견할 엄두가 나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팝(Pap)을 묘사할 때 그의 “백인 피부”에 대해 “물고기의 배 같이 하얀, 두꺼비의 배 같이 기분 나쁘게 하얀” 피부에 대한 트웨인의 생각은 당대 흑인과 대조되어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백인들의 “하얀 피부”의 담론에 대한 트웨인의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 모른다.

이러한 백인 아버지들에 비해 짐의 모습은 작품 전체에 걸쳐 활기있고 현명하며 사려깊고 친절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어쩌면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이 짐이야말로 이 작품에서 아버지가 부재하는 “혁에게 대리 아버지 (surrogate father) 역할을 한다”(390)고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짐의 이러한 모습은 42장에서 탐을 간호하는 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짐은 탐에 의해 수없는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탐이 총에 맞자 자신의 탈출과 자유를 포기하고 탐을 간호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짐의 재현은 백인 아버지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그 인간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짐의 인간성은 31장에서 혁이 짐의 위치를 고발하지 않고 직접 짐을 구하겠다고 결심하는 데 가장 큰 동인이 된다. 이 부분에서 혁은 짐의 위치를 고발하지 않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며 “지옥에 갈 일”이라고 생각하며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하지만 자신이 짐과 보냈던 아름다웠던 시간을 생각하며 자신이 직접 짐을 구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여기에서 혁이 짐과 보냈던 시간을 회상하는 장면은 혁의 마음속에 짐이 한 인간으로서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나는 또 생각했다. 강을 내려가며 여행하는 것을 회상하니 짐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낮이나 밤이나 달빛 속에서나 비바람 몰아치는 속에서나 항상 우리는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같이 웃으며 강을 흘러 내려왔다. 그러나 나는 짐에게 냉정한 마음을 가질 수 없었으며,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내가 잠자고 있으면 깨우지 않으려고 자기가 망보는 것을 끝내고도 내 뒤통까지 해주던 짐이 눈앞에 떠올랐다. 내가 안개 속에서 돌아왔을 때 그렇게 짐은 정말 기뻐했는지. 그 집안싸움이 벌어졌던 곳에서 늪지에서 만났을 때 짐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는 나를 사랑하는 애야 라고 부르며 귀여워해주었고, 나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 주었고, 나에게 항상 얼마나 잘 대해주었던가. 마지막으로 나는 뗏목위에 천연두 환자가 있다고 거짓말해서 그를 구해주었을 때가 생각났다. 짐은 너무 감사히 여기며 나에게 짐이 가진 가장 좋은 친구이며, 난 하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했다. 나는 주위를 돌아보았고 그 종이가 눈에 띄었다. (223)

혁이 어떤 백인과의 이러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백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경멸하는 대상인 도망 흑인 노예와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 짐의 한 인간으로서 훌륭하고 온전한 모습을 잘 드러낸다. 바로 그것을 통해 혁은 “가장 좋은 친구”를 위해 “지옥에 가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혁의 마음속에 짐이 한 인간으로서 있는 것은 흑인노예를 물건으로 간주했던 당대 인종담론을 기반부터 허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ng 207).

이 작품은 더 나아가 인종 담론을 근간으로 하는 당대의 흑백 정치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가한다. 남부 재건시대동안 남부에서는 차별(discrimination)과 분리(segregation)를 근간으로 하는 흑인법(Black Codes)을 통해 흑인 가둬넣기(imprisonment)가 진행된다. 그러한 흑인 가둬넣기에 대해서는 북부조차도 암묵적인 동조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877년 남부와 북부의 타협으로 인해 재건시대가 종료되고 남부에서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흑인 차별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⁵⁾. 이 작품의 32장부터 43장까지 이르는 부분은 이러한 흑백 정치 구조에 대한 트웨인의 풍자이자, 의문제기라고 할 수 있다. 남부 백인 지배 계급인 탐에 의해 짐이 헛간에 갇힌 채 탐의 놀이 대상이 되며, 31장까지 성장을 하였던 가난한 백인 계층 혁이 탐의 부하노릇을 하는 이 부분은 이러한 흑백 정치 구조에 대한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32장에서 43장 까지 부분에 대해 많은 비평가들은 31장까지의 진지한 혁의 성장과 “자유에 대한 추구”(quest for freedom)가 사라지고 갑자기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 “회피 부분”(Evasion Section)이라고 부른다(Marx 427). 회피부분에서 더욱 독자들을 당혹시키는 것은 탐의 재현문제이다. 『탐소여의 모험』(*Adventures of Tom Sawyer*)에서 ‘목가적 주인공’(pastoral hero)로 등장했던 탐이 회피부분에서는 그야말로 우스꽝스럽고 비합리적이며 어찌면 간혀있는 짐에게 잔인하기조차 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짐을 탈출시킨다는 명목으로 짐에게 거미와 방울뱀, 그리고 쥐 등 온갖 괴로움을 전가하는 다음과 같은 장면은 이러한 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5)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러한 인종차별 법은 남북전쟁 직후부터 남부 각주에서 제정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 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에 의해 폐기될 때까지 남부에서 계속 된다.

“짐 여기 거미가 있나?”

“아닙니다. 고맙게도 거미는 없습니다. 탐 주인님.”

“그래. 그럼 우리들이 잡아다주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주인님. 저는 갖고 싶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차라리 방울뱀이 나올 겁니다.”

탐은 일 이분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런 일은 전에도 있었을거야. 분명 있었겠지. 이치에 닿아.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야. 짐, 어디에다 기를 수 있지?”

“뭘 또 기른다고요? 탐 주인님.”

“뒤라니, 방울뱀이지.”

“아이고, 이젠 또 무슨 말씀입니까? 탐 주인님, 방울뱀이 이리로 오면 전 머리통으로 저 벽을 부시고 도망칠 겁니다.” (267)

여기에서 탐의 모습을 해방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갇혀있는 흑인에게 가하는 백인사회의 인종 담론의 상징이라고 파악한다면 마지막 부분에서 무려 12장에 걸친 탐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은 백인 지배층이 가진 인종 담론에 대한 풍자라고 할 수 있다. 즉 당대 흑백 정치구조에 대한 트웨인의 풍자가 희화화(burlesque)와 유머라는 글쓰기 전략을 통해 나타난 것이며, 이 부분은 당대 흑인의 가뉘놓기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짐을 가두어 놓고 장난하던 탐이 이러한 놀이가 “자손 대대로 80년 동안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256)고 하는 부분은 어쩌면 “해방되었으면서 해방되지 못한” 흑인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출판되었을 때 미국 남부의 많은 지역에서 금서가 되었던 것은 어쩌면 이런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이 끊임없는 유머로 가득 차 있는 것도 당대 인종 담론과 흑백 정치 구조에 대한 전복을 하던 작가가 독자와 화해를 시도하던 몸짓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트웨인의 지배 담론에 대한 전복은 계몽(Enlightenment)과 모더니티(modernity) 담론에 대한 의문제기에서도 잘 보여진다. 1884년 철제로 된 세계 최초의 다리인 맨하탄의 브루클린 다리(Brooklyn Bridge) 완공식에 참석하여 그 다리의 근대성과 진보성에 대해 찬탄을 던진 사람들은 이념과 계급을 가리지 않았다. 거기에는 자본가와 주류 정치가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자나 노동 운동가를 모두 포괄하고 있었다. 노블(David Noble)이 지적했듯이 당대 많은 지식인들이 노동자들이 비참한 삶의 모습, 도시화 등 모더니티의 부산물에 대한 비판을 하였지만 모더니티 자체에 대한 비판은 그리 높지 않았다(32-5)⁶⁾.

『아서왕 궁전의 커네티컷 양키』(*A Connecticut Yankee in King Arthur's Court*, 1889)에서 주인공인 행크(Hank)가 하는 모더니티 프로젝트는 당대의 모더니티의 담론을 잘 재현하고 있다. 그는 과학과 근대 문명이 없는 5세기 아서왕의 캐멜롯(Camelot)에 “19세기 근대 문명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상”(85)을 만들어 낸다. 그것에 대한 트웨인의 긍정적 묘사를 보면 트웨인 역시 계몽과 모더니티가 민주주의와 산업화 등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트웨인은 행크의 모더니티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파멸에 이르는 것을 통해 모더니티 담론에 대한 근원적 의문을 던진다. 사실 이 작품에 대한 평가에서 많은 비평가들은 트웨인의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은 샌드벨트 전투(Battle of Sandbelt) 등 후반부에서만 나타난다고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10장에서 행크가 모더니티 프로젝트에 의해 문명을 세우는 처음부터 트웨인의 시각에는 거리가 있음이 분명하다⁷⁾. 트웨인은 행크의 문명을 찬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를 “조용한 화산” 또는 “끓어오르는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다.

6) 이런 점에서 필자가 보기에 사회주의도 모더니티의 부산물인 노동자 계층의 소외를 극복한 모더니티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지 모더니티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니라고 본다.

7)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즐고 『커네티컷의 양키와 모더니티』 47-8 참조.

나의 업적들은 독재자가 한 왕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었다. 나는 이러한 어두운 땅에서 의심받지 않고 바로 코 밑에서 급격히 발전하는 19세기 문명을 세울 수 있었다. . . . 그것은 마치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꼭대기를 내놓은 채 조용히 서 있으나 그 뱃속에는 끓어오르는 지옥을 가진 채 아무 표시도 없는 조용한 화산과 같이 분명하였다. (82)

이런 점에서 처음부터 행크가 모든 인간에 대해 수학적으로 파악하고 물화된 모습으로 파악하는 장면 등은 계몽과 모더니티의 근본이 계산과 인간의 물화에 근거한 차가운 근대적 이성임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찌면 이것은 아도르노(Adorno)나 호르크하이머(Horkheimer)가 지적한 모더니티의 한계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작품에 등장한 것으로 그 일관성이 비평가들의 논의 대상이 된 샌드벨트 전투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즉 이 장면은 트웨인이 결국 물화와 차가운 이성에 근거한 모더니티가 인류 전체에 파멸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전투에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지적한 근대성이 내포한 전체주의 폭력처럼 행크는 자신이 세운 문명을 모두 폭파시킨 후 자신이 “계몽”하려고 했던 중세 기사를 전멸시킨다. 행크가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수학적 계산속에서 자신의 사관(Cadets) 들과 함께 삼만 명의 기사를 학살하는 모습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나는 세 번째 담장에 전류를 집어넣었다. 그 즉시로 네 번째, 다섯 번째에도 전류를 보냈는데 순식간에 그 사이에 시체로 가득차다. 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오고 있었다. 나는 모든 상대 군대들이 함정에 들어왔다고 믿었다. . . . 우리는 죽은 사람들에 세 겹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모든 다른 철조망들은 살아 있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은 철조망을 통하여 살금살금 들어오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전기 불꽃이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게 만들었다. ... 나는 철조망 모두에 전기가 통하게 했고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비명소리
들이 울렸다 ... 사격 준비, 재군들! 발사! 13개의 게틀링 총에서는
운이 다된 일만 명에게 죽음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엄청난
난 화력의 홍수 속에서 순간적으로 모두 자리에 섰다. (439-40)

더 나아가 마지막 부분에서 행크와 그의 사관들의 파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더니티의 파멸적인 결과를 통해 당대 지배 담론인 모더니티 자체에 대한 트웨인의 전복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행크와 그의 사관들은 모든 중세 기사들을 전멸시킴으로 5세기 아서왕국의 최종 승자가 된다. 하지만 모든 무장 저항을 부숨으로써 영국의 지배자가 되었으나 결코 “최종적이고 진정한 승리”(440)를 얻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만든 덫”, 즉 그들 희생자들의 시체 냄새 때문에 죽음을 맞아야만 되는 운명에 처한다. 그들은 승자가 되었음에도 그 희생자들의 시체더미를 빠져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죽어야 되는 운명에 빠진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아이러니를 통해 결국 트웨인이 제시하는 모더니티에 대한 태도는 분명하다.

우리는 이 여자가 있어 반가웠다.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모두 덫에 빠져 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자신이 만든
덫에 말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곳에 머문다면 우리가 죽
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방어막에서 나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승리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정복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복 당했다. 보스도 이 사실을 인식했고 우리
모두 다 이 사실을 인식했다. . . . 나는 죽은 수천명 때문에 생긴
독가스 때문에 아파쓰러진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443)

트웨인의 모더니티 담론에 대한 의문제기는 후기 작품에 이르러 진보에 대한 의문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노블이 지적했다시피 역사적 낙관론인 진보주의 담론은 계몽과 모더니티의 근본에 내재한 중요한 지배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159). 당시 많은 서구의 비판적 지식인들도 인간 사회가 진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에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쩌면 서구 자본주의를 비판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결국 진보를 향한 사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당대 인간 진보에 대한 믿음에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트웨인은 『신비한 이방인』(*The Mysterious Stranger*)에서 계몽을 중심으로 시작된 인간 역사의 진보주의 담론에 의문을 제기한다. 『신비한 이방인』에서 사탄이 화자인 테오도르(Theodore)를 데리고 끊임없이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것을 현재와 병치시키는 것은 트웨인의 역사에 대한 회의를 잘 보여준다. 사탄이 보여주는 역사의 모습은 대부분 우스꽝스럽고 무의미한 역사의 장면들 뿐이다. 그러한 모습은 질투와 무의미한 투쟁으로 가득찬 현실의 모습과 끊임없이 병치된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한 사탄의 냉소는 어쩌면 트웨인 자신의 역사의 진보에 대한 거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신비한 이방인』의 중요 판본중의 하나인 「젊은 사탄의 연대기」(*The Chronicles of Young Satan*)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이 판본에서 사탄은 “인간 종족의 진보의 역사를 보고 싶은가?”라고 묻고 화자인 테오도르와 그의 친구인 세피(Seppi)에게 인류 역사를 보여준다. 그러나 사탄이 보여주는 것은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무자비한 침략, 민족과 국가 사이의 전쟁과 학살의 모습이며 이것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리고 사탄은 인류 진보의 가장 가까운 실례로 제국주의 국가들이 최신 무기로 약소 민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모습에 너무 놀란 테오도르와 세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냉소적인 사탄의 얼굴을 쳐다본다. 그러자 사탄은 인류 진보라는 것은 없으며 인간은 다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기괴하고 어리석은”(grotesque and foolish) 역사를 반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후기 작품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트웨인의 화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탄의 역사 규정은 바로 트웨인의 당대 진보의 담론에 대한 거리를 잘 보여준다. 『신비한 이방인』에서 사탄이 화자들에게 인생이란 결국 아무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꿈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트웨인의 진보 담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 그 자체가 단지 환상이며, 꿈일 뿐이지.”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다. 맵소사! 나는 그 생각은 이미 수천 번 생각해 왔다.

“아무 것도 존재하는 것은 없지. 모든 것은 꿈일 뿐이야. 신, 인간, 세계, 태양, 달, 별들의 황야, 모두 꿈, 꿈일 뿐이야, 그것들은 아무 존재도 없지, 모든 것은 빈 공간과 너라는 존재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지.” (188)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많은 비평가들은 트웨인 후기의 염세주의를 나타낸다고 폄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1600년대 초반 근대 문명이 시작할 때”임을 작가가 작품 속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며, 공간적 배경역시 근대 문명 발아의 중요 장소인 인쇄소임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트웨인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모더니티의 중요 담론인 진보에 대한 회의이자 그것에 대한 전복이라고 볼 수 있다.

IV.

후기 작품에 이르면 트웨인의 당대 지배 담론에 대한 비판은 더욱 신랄해지는 듯싶다. 1890년대 후반에 이르러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존 톰슨(Jon Thompson)이 지적했듯이 당대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구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서구 제국주의는 당연한 것이고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84-5). 가령, 『킴』(*Kim*)의 저자 키플링(Kipling)이 보여주는 서구 제국주의의 모습은 그것을 잘 드러낸다. 하지만 트웨인은 『적도를 따라서』(*Following the Equator*)에서 제국주의 담론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가한다. 물론 이 작품에 나타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최근 비평에서 상당히 주목받은 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제시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제국주의가 가진 본질적인 담론에 대한 비판이다. 이 작품이 작가가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것을 기록한 기행문으로 당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트웨인은 거기에는 서구 열강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고 약탈을 했는지, 더 나아가 그러한 제국주의 담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가령 뉴 칼레도니아(New Caledonia)에

서 프랑스의 제국주의자들이 원주민을 집단적으로 독살하고 문명의 전파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영토를 빼앗는 것에 대해 트웨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원주민을 집단 학살한 농장주)는 역사에 있어서 문명을 대표하는 거의 단 하나의 선구자이다. 그는 모든 계층과 유전의 편견을 넘어서서 우월한 민족이 야만인을 다스리는 데 어떻게 자비를 도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것은 참 안된 일이다.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서 경의를 표해야 하는데 말이다. . . . 당신은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모든 행위가 합쳐져서 무엇이 되는지 알고 있는가? 그것은 강도질이며, 능욕이며, 기아와 백인들의 위스키로 아주 천천히 원주민들을 살해하는 것이다. (213)

트웨인은 제국주의가 기독교를 앞세우고 문명의 전파라는 가면을 쓴 채 식민지인의 정신을 노예화시키며 그들을 착취하며 학살함을 그의 다른 후기작에서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국에서 미국 제국주의가 어떻게 중국인들에게 서구의 수출용 문명을 팔아 착취를 하는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To the Man Sitting in Darkness” 1901)는 그것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필리핀에서의 미국 점령군들이 어떻게 문명 전파와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필리핀인들을 학살하는지 풍자하고 있는 「핀스턴 장군의 옹호」(“A Defense of General Funston” 1902), 그리고 콩고에서의 벨기에의 왕 레오폴드의 약탈과 학살을 풍자하고 있는 『레오폴드왕의 독백』(King Leopold's Soliloquy 1905)은 트웨인의 서구 제국주의 담론에 대한 전복을 잘 보여준다.

이것과 더불어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은 작가 중의 하나이며 미국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는 트웨인의 후기작은 미국 비평가들에 의해 별반 논의되지 않으며—최근에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비평가나 여성 비평가들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되었다—제대로 출판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1898년 이후 그가 쓴 초고가 거의 10 만여 단어에 달하며 그 양은 그 이전 쓴 전 작품의 양의 2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Macnaughton 23)⁸⁾. 많은 비평가들은 그가 당시 아내와 딸들을 잃어 염세주의에 빠져 있었으며 출판되지 않는 작품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초고들은 위대한 작가였던 트웨인의 진면목을 훼손시키는 “비정상적인 글쓰기”라고 폄하되며 많은 경우 출판이 유보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적 내용을 보면 아내와 딸들이 죽은 1900년도 이후 그가 일시적인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특유한 활달함과 쾌활함을 죽을 때 까지 결코 잃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가령 그는 1902년 이후에도 말년에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재정 조인자였던 금융회사 이사인 헨리 허틀스톤 로저스(Henry Huttleston Rogers)의 사무실에서 거의 매일 나타나서 당구를 즐기며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미국 비평가들이 주장하듯이 그의 염세주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후기 트웨인의 글이 이렇게 비평가들에 의해 간과되고 있는 것은 그의 지배 담론의 전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어쨌든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와 하나씩 출판되기 시작한 당대의 초고들을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와 미국의 근본적인 지배 담론을 비판한 글들이 많이 있다. 가령 앞서 언급한 『레오폴드왕의 독백』을 보면⁹⁾ 벨기에의 레오폴드왕의 고민과 그의 독백을 통해 서구 제국주의의 근본을 드러내고 있다. 100여 페이지의 고백에서 레오폴드왕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이 기독교적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식민지인 콩고에 서구 문명을 심기위해 노력하는 데도 인구가 20년 사이에 40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레오폴드왕의 진지한 고뇌는 우스꽝스러움과 함께 서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근본적인 모습에 대한 트웨인의 신랄한 비판을 보여준다. 또한 앞서 언급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를 보면 미국 제국주의가 중국에서 어떻게 기독교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식민 지배를 만들어가

8) 대부분의 초고들은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마크 트웨인 아카이브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

9) 이 작품은 오랫동안 출판되지 않았으나 1961년 동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은 작가의 작품이 동서 냉전의 첨예한 대립의 시기에 사회주의 국가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동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것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는 가를 풍자하고 있다. 트웨인은 “어둠속에 앉아있는” 중국인 친구에게 미국에는 두 가지 문명이 있는데 “하나는 국내 소비용이고 하나는 이교도 시장을 위한 것”(one for home consumption and one for the heathen market)이라고 말한다(83). 더 나아가 기독교를 앞세운 수출용 문명 때문에 어둠속에 앉아있다고 규정되어 자신의 것을 부정하게 된 중국인 친구 추(Chu)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트웨인이 당대 제국주의 속에 있었던 담론에 근본적인 통찰을 하고 그것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웨인은 당대의 서구/ 유럽중심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적도를 따라서』에서 캐나카(kanaka) 원주민들에 대한 서구인들의 문명 전파에 대한 트웨인의 태도는 그것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트웨인은 캐나카 원주민들의 사망률이 백인들이 오기 전에는 평화시 열두 명이고 전쟁 시 열다섯 명이었으나 백인 문명이 온 이후 천 명당 백오십 명이 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원주민들에겐 서구의 문명보다 “전쟁이나 역병, 기아를 소개시켜주는 것”(89)이 더 좋을 것이라 지적하며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지”를 언급한다. 트웨인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식민지에서 서구 문명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는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는 백인들이 자신은 다른 야만인보다 덜 야만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우스꽝스럽다”(213)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트웨인의 태도를 잘 드러낸다. 그러한 모습은 1900년도 이후 작품에 들어오면 더욱 신랄해진다. 「스톰필드 선장의 천국여행」(“Captain Stormfield's Visit to Heaven” 1905)에서 나타나는 천국의 모습은 그 대표적인 실패이다. 이 작품에서 스톰필드 선장이 방문한 천국에는 백인들은 없고 오직 유색 인종으로만 꽉 차있다. 이러한 점은 백인이 더 우월하다는, 그리고 백인 문명이 더 우월하다는 트웨인의 전복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트웨인의 생각이 서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중심주의 담론도 허물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인간의 위대성과 우주 만물에 있어서 중심이라는 담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서구 기독교의 전통, 그리고 계몽과 모더니티의 역사적 발전 속에서 서구인들에게 하나의 당연한 진리로서 자리잡

고 있었다. 그러나 트웨인은 그의 후기작에서 이러한 인간중심주의 담론을 전복한다. 그의 『지구로부터의 편지』(*Letters from the Earth*)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이다¹⁰). 이 작품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함부로 말한 죄로 천국에서 추방된다. 그는 천국에서는 하루지만 지상에서는 천년의 세월을 추방당한 채 창조주로부터 인간 종의 실험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 작품은 그가 지상에 내려와 인간 종을 살펴보고 대천사에게 보고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사탄의 보고에 의하면, 인간은 오늘 와서 내일 가는 “흙으로 시작해서 약취로 끝나는” 존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간 세계는 “자신들이 위대하다는” 영웅적 착각에 빠진 그로테스크한 세계이며, 인간은 그런 점에서 우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명물”이라고 말한다. 사탄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이 “신의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오해하는 존재이며,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바보”이다. 어쩌면 트웨인이 후기 작품에서 끊임없이 동물과 인간을 비교하며 인간이 과연 동물보다 나은지 반문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의 위치」(“Man's Place in the Animal World”)에 등장하는 인간의 위치는 자신이 가장 높다고 착각하는 것과는 달리 가장 밑바닥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트웨인의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풍자는 「세상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을까?」(“Was the World Made for Man?”)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트웨인은 지구가 이 천체에서 가장 중요한 별이며 이 지구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오해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트웨인의 지적은 그의 전복의 대상이 서구인에게 진리처럼 여겨지던 인간중심주의 담론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트웨인은 당대 미국인들이 당연히 여겼던 지배 담론을 다양한 측면에서 그 근본부터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 전복을 시도했던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 이 작품 역시 트웨인이 1906년경에 쓴 것으로 사후에 출판되어 큰 인기를 차지하였다.

인 용 문 헌

- 성경준. 「커네티컷의 양키와 모더니티」. 영학논집. 14(2002). 한국외국어대 학교. 33-52.
- Arendt, Hannah. *The Origin of Totalitarianism*. San Diego: A Harvest Book. 1979.
- Bell, Bernard. "Twain's Nigger Jim: The Tragic Face Behind the Minstrel Mask." *Mark Twain Journal* 23.1 (Spring 1985): 10-17.
- Horkheimer, Max, and Theodore W. Adorno. *Dialectic of Enlightenment*. 1944. Trans. John Cumming. NY: Continuum. 1972.
- Kyungjun, Sung. "Huckleberry Finn and Racial Discourse: What a Trouble it Was to Make a Book."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Cultures* 4(1996). 199-216.
- Macnaughton, William R. *Mark Twain's Later Years as a Writer*. Columbia, Missouri: U of Missouri P. 1979.
- Marx, Leo. "Mr. Eliot, Mr Trilling and Huckleberry Finn." *American Scholar* 4(Autumn 1953): 425-39.
- Morrison, Toni. "This Amazing, Troubling Book." Ed. Thomas Cooley.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New York: Norton. 1999.
- Noble, David. *America By Design: Science, Technology, and the Rise of Corporate Capitalism*. Oxford: Oxford UP. 1977.
- Railton, Stephen. "Jim and Mark Twain: What Do Dey Stan' for?" *Virginia Quarterly Review* 63.3 (Summer 1987): 393-408.
- Smith, David L. "Huck, Jim, and American Racial Discourse." *Satire or Evasion? Black Perspectives on Huckleberry Finn*. Ed. James S. Leonard and Thomas A Tenney. Durham: Duke UP. 1992. 103-20.
- Sundquist, Eric, ed. *Mark Twai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aglewood Cliffs, N. J.: Princeton Hall. 1994.
- Thompson, Jon. *Fiction, Crime, and Empire: Clues to Modernity and*

- Postmodernism*. Urbana: U of Illinois P. 1993.
- Trilling, Lionell. "Huckleberry Finn." *Mark Twain: Selected Criticism*. Ed. Arthur L. Scott. Dallas: Southern Methodist UP. 1967. 272–80.
- Twain, Mark.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New York: Norton. 1999.
- _____. *A Connecticut Yankee in King Arthur's Court*.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3.
- _____. *Following the Equator: A Journey Around the World*. Hartford: The American Publishing Company. 1897.
- _____. *Letters from the Earth*. New York: Perennial–Harper & Row. 1974.
- _____. *King Leopold's Soliloquy*. Berlin: Seven Seas Books. 1961.
- _____. *Mark Twain's Mysterious Stranger Manuscripts*. Ed. William Gibso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69.
- _____. *No. 44, The Mysterious Stranger*.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2.
- _____. *Mark Twain's Correspondence with Henry Huttleston Rogers. 1893–1909*. Ed. Lewis Leary.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69.
- Young, Robert. *White Mythologies: Writing History and the West*. NY: Routledge. 1990.

Abstract

The Subversion of Hegemonic Discourses in Mark Twain's Works

Kyungjun Sung

This paper aims to explore how Twain subverts his contemporary hegemonic discourses in his works. I argue that Twain's works are not just the criticism of American society, but the subversion of his contemporary hegemonic discourse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his anxieties over writing strategies and the audience's violent responses to his works.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demonstrates the subversion of his contemporary hegemonic racial discourse, which positions Twain much beyond the critic of racism. Jim seemingly looks like a minstrel darky, but Twain shows Jim's undermining the image of minstrel darky, manipulating the representation of Jim and comparing it with representation of the white. Especially Huck's meditation on his relationship with Jim in the chapter 31 and the representation of Tom and Jim in the Evasion Section could be the climax of Twain's subversion of his contemporary racial discourse.

Twain's subversion of his contemporary hegemonic discourse on modernity is revealed in *A Connecticut Yankee in King Arthur's Court*. Especially the scene of the battle of Sandbelt portrays the catastrophic results of Hank's modernity project, which dramatically illustrates Twain's undermining of his contemporary hegemonic discourse on modernity. Twain's subversion of his contemporary discourse on progress depicted in *The Mysterious Stranger* also demonstrates Twain's undermining of his

contemporary modernity discourse.

Twain's subversion of his contemporary hegemonic discourse on imperialism is apparent in his later works such as *Following the Equator* and other short writings. Twain investigates the nature of imperialist discourse and undermines the discourse of the white's superiority over the other races. Twain's subversion of his contemporary hegemonic discourses even reaches out to the undermining of human-centric discourse deeply inscribed in western history and philosophy.

Key words: Mark Twain, Subversion, Hegemonic Discourse, Imperialism

마크 트웨인, 전복, 지배 담론, 제국주의

논문접수일: 2009. 4. 25

심사완료일: 2009. 5. 20

게재확정일: 2009. 5. 30

이름: 성 경 준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영문학과

주소: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e-mail: ksung@hufs.ac.kr